



Born Again!

# Atelier Peter Fong

취재 유승현

다양한 세대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 1층에 자리한 카페 겸 웨어오피스 Atelier Peter Fong은 채우는 것보다 지우는 것, 더하는 것보다 비우는 것에 몰두해 기존 건물과의 조화를 의도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시간을 부각한다.



Design / LUKSTUDIO · Christina Luk, Alba Beroiz Blazquez, Ray Ou, Jin Hong Cai, Shanyun Huang  
Graphic Design / Evelyn Chiu  
Location / No.42 Huakang Street,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Area / 250m<sup>2</sup>  
Photography / Dirk Weiblen



세월의 흔적인 역력한 건물 1층을 하얀 벽체와 통유리로 가다듬어 깔끔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중국 광저우의 중심, Tianhe에서 진행된 Atelier Peter Fong 프로젝트는 오래된 고층 연립주택의 1층을 카페 겸 쉐어오피스로 새로이 매만진 작업이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건물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아 복잡한 모양새였는데, 디자이너는 하얀 벽체와 통유리의 파사드로 공간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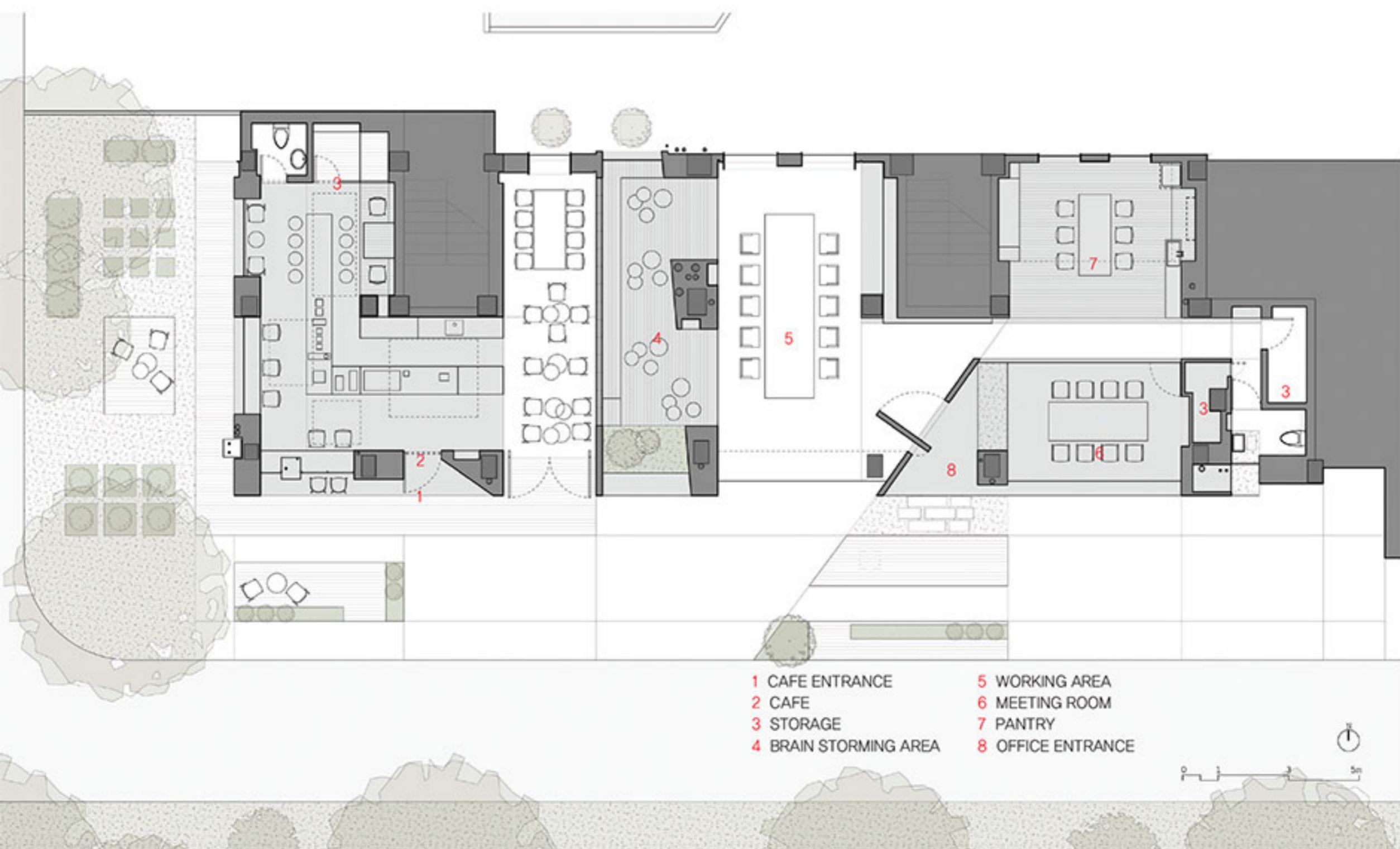
카페와 브레인스토밍공간, 사무공간, 미팅룸으로 구성되는 Atelier Peter Fong은 컨테이너를 늘어놓은 듯 박스 형태로 각 공간을 간결하게 나누었다. 대신 내부에 사선의 통로를 두어 디자인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알루미늄 소재의 직선 캐노피를 둘러 분할된 내부를 하나의 매스로 조직했다. 상층부의 주거공간과 카페를 구분 짓도록 돕는 캐노피는 어느 색과도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옅은 회색으로 채색해 기존의 건물과의 조화를 의도했다.



그레이 컬러의 직선 캐노피가 건물 상층부의 기세를 분리시킨다.



단아한 인상의 카페 측면



Floor Plan



입구와 맞닿아 있는 카페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와 조명을 설치하고 1~3인용 좌석을 여러 형태로 마련해 방문객의 편안한 미팅을 도모한다.





가녀린 선을 강조한 조명과 미니멀한 가구가 부드럽게 녹아든다.



천장과 벽체에 다양한 직사각형의 개구부를 두어 집중하는 느낌을 상쇄시켰다.



직선미가 돋보이는 골조.



화이트 컬러와 우드톤의 조화가 내추럴한 인상을 형성한다.

순백색을 주조색으로 삼아 단아함이 느껴지는 내부는 우드 소재의 가구 및 마감, 따뜻한 색 온도의 조명을 적용해 안락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반면 천장에 다양한 직사각형의 개구부를 마련해 심심한 분위기를 상쇄하며 공간에 리듬감을 형성한다. 특히 각 공간의 바닥을 테라조, 타일 등으로 마감하고 컬러 구성을 미묘하게 달리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했다.

입구와 맞닿아 있는 카페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가구와 조명을 설치하고 1~3인용 좌석을 여러 형태로 마련해 방문객의 편안한 미팅을 도모한다. 카페와 셰어오피스 중간에 자리한 브레인스토밍공간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패널과 목재 벤치를 두어 두 공간의 이질감을 중화시키며 경계를 흐릿하게 지우는 역할을 한다.



브레인스토밍공간은 카페와 셰어오피스 중간에 자리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패널과 목재 벤치로 카페와 셰어오피스를 부드럽게 연결 지었다.





시시각각 다른 빛깔의 햇살이 드리우는 쉐어오피스는 장식적 요소를 감해 별 자체가 주인공인 공간으로 완성했다.



나무와 돌을 오브제 삼아 간결하게 꾸민 공간.

한편 이어지는 쉐어오피스는 통창을 적용해 전실에 따사로운 햇빛이 들도록 설계했다. 시시각각 다른 빛깔의 햇살이 드리우는 내부는 장식적 요소를 감해 별 자체가 주인공인 공간으로 완성했다. 널따란 10인용 테이블이 자리하는 메인 사무 공간은 전면의 유리로 시원한 인상을 강조하고 블록을 연상시키는 직사각형의 조명과 천장 마감으로 위트를 더했다. 미팅룸 역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회의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벽체 하단에 모노톤의 조약돌과 석재를 디스플레이해 동양적 아름다움을 더했다. 이렇듯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 1층에 자리한 Atelier Peter Fong은 건물의 어수선한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내고, 여백의 디자인을 통해 방문객의 순간을 도두새기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



넓따란 10인용 테이블이 자리하는 메인 사무공간은 전면을 유리로 마감해 시원한 인상을 강조했다.



통창을 적용해 전실에 따사로운 햇빛이 든다.



쉐어오피스는 미팅룸과 사무공간을 사선으로 배치해 구조적 아름다움을 부각했다.



벽체 하단에 모노톤의 조약돌과 석재를 디스플레이해  
동양적 아름다움을 더한 셰어오피스.





미팅룸은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으로 회의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여백의 디자인을 통해 방문객의 순간을 도두새기는 Atelier Peter Fong 프로젝트.



낮은 고층 연립 주택에 자리하는 것을 연상하기 어려울 만큼 단정한 매무새를 자랑한다.